

中, 호주 무역보복 으름장... 결과는 최악의 석탄대란 '역풍'

● 차이나 뉴스&리포트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무역보복 호주 수출업체 손실 10% 미만 중국 대신할 새로운 시장 찾아

中, 호주산 석탄수입 금지 역효과 공급 부족... 몽골 등에 손 내밀어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이미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대국 2위의 경제보복이라며 시작만 요란했을 뿐 사실상 중국이 얻은 바는 없었다. 오히려 호주에겐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된 반면 중국은 호주산 수입품을 대체하느라 더 비싼 값을 치뤄야 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드니공과대학의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ACRI)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호주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대부분의 호주 수출업체에게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호주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일부 예측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무역보복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다.

지난해에는 호주 소고기를 시작으로 밀과 보리, 소고기, 석탄, 구리, 면화, 키크랩, 와인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

행했고, 올해 5월에는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대부분의 상품 수출업체는 중국의 제재로 총 수출액의 10% 미만의 손실을 입었다.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 찾기에 성공하면서다. 와인과 일부 목재를 제외하고는 보리나 석탄, 구리, 면화, 소고기, 랍스터 등은 대체시장으로 손실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의 많은 사업주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가격을 누려왔었고, 이런 시장이 사라졌을 때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체 시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역시 "중국은 대체 공급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목표로 삼았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대안 구매자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런 글로벌 무역의 재편성이 바로 호주에 가해진 피해가 제한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오히려 중국이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수입 연료탄의 57%를 호주에서 들여왔다. 제철소용 제철용탄도 수입의 40%를 호주에 의존했다. '석탄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인접한 몽골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리롱 신다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가격 급등을 막으려도 하지만 앞으로 6개월은 석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보통 10월 중순부터 석탄을 비축하는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 초부터 비축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시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3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은 "코로나 충격에 잠재성장률 하락"

올~내년 잠재성장률 2% 수준 추정 고용 악화, 서비스업 타격 등 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흔효과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추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충격의 잠재GDP에 미치는 파급경로 ▲중장기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하기 위한 잠재GDP 추정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은 중요소생산성(TFP) 저하,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를 통해 잠재GDP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 구조적 실업증가에 따른 이력현상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등으로 중요소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나왔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잠재GDP 수준(level)의 영구적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growth rate)은 코로나 이전 경로로 수렴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국가별로 팬데믹 충격의 중장기 영향이 상이한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중장기 잠재성장률에 대한 팬데믹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경우 국가별 정책 대응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중(2021~2022년) 2% 수준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2019년 8월)였던 2.5~2.6%에 비해 0.3~0.4%포인트(p) 가량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돼 온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다. 또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 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이번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80% 할인!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여 개

SINCE 1996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 02)2163-0044

☎ 010-5183-0048

📍 ID: KOREAHONGSAM

✉ haetter@naver.com

거래(카드,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